

## 우리도 당당히 그 뜻을 받들렵니다

참교육 위해 몸바치시는 선생님께 !

어느새인지 방안에 여치인지 귀뚜라미인지가 들어왔는데도 저는 가을의 방문을 실감하질 못했습니다. 지난주 동안 많이 아파서 참으로 자연의 신비스러움에 마음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앓이를 치른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맹세하는 터랍니다.

“건강을 타고나신 분이라서……” 하시며 평안함을 일러주시는 사모님의 목소리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미 파열된 사건에 대해 당직자의 책임을 묻지도 못할 엄청난 일을 짚어지신 선생님께선 필히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즈음 교원노조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갈수록 저의 무지함과 왜소함을 느끼며 열심히 뛰시는 선생님의 광기(!)에도 정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성과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무척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움 드리지 못함에 마음 안됐지만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해 나가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곳에서도 신임 교사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학생들은 십 원씩 걷어서 광주차비를 마련해 돌아가시라고 한답니다(한 학급 60명, 옥과↔광주 교통비 460원). 이렇게 해야 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비운의 학생들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헤쳐 나간 뒤의 영예로움을 맛보기 위해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겠지요.

1989년 9월 5일 김현임 올림

## 가슴 터지게 부둥켜안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 없이 수상한 공기에 둘러싸여 학교를 쫓겨 나오던 그날부터 계속 불안했고, 그 불안보다도 더한 참으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러 번 저희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여러 번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으나 그러다 다시 풀어지는 그 주먹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선생님께 변변히 격려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힘내시라고 그런 말 한마디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지치신, 그러나 따뜻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 뒤에 또 다른 차가운 눈들이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통제들이 선생님과 우리의 마음을 잇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남을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혼들리고, 때로 무관하고자 하고, 때로 절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쓰러져 버려도 끝까지 남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우리들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선생님만은 빠져 주셨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전디기가 힘들 뿐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아야 한다. 너희들은 고 2다”라고요. 선생님도 참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못 참겠다고 그러는 건 정말 사치스런 괴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원노조 자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선생님께 대한 믿음이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선생님들께서 누구를 위해 자신을 태워 가시는지 알기 때

문입니다. 제가 무엇을 받아먹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탈퇴의 갈등 상황에 놓이신 선생님들과 이미 탈퇴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못박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중에 돌아가셨으나 결국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왔던 것입니다. 그날은 꼭 올 것입니다. 가슴 터지게 부둥켜안고 웃어 볼 그날. 그리고 그날까지 저희들은 선생님의 이름을 저희 가슴에서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1989년 8월 한 못난 학생 올림

진주 ○○고교 2학년

## 우리는 사랑의 수업을 원합니다

지금 밖은 너무도 깜깜해서 다시 밝아지리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 것처럼 내일이면 또 밝음이 찾아오겠지요. 사랑으로 교원노조를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이야말로 그 새벽을 준비하는 참일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비록 학교에서는 해임을 당하셨지만 내 마음속의 작은 배움터에선 영원히 남아 계셔서 항상 나의 행동과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학교에선 선생님들을 해임시킨 후 곧바로 새 선생님들을 들였더군요. 어른들은 선생님이란 존재를 똑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면 그 자리에 금방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마치 기계 부품처럼……

선생님들을 빼앗긴 슬픔 때문에 뺨개진 우리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우리가 찾는 엄마 젖은 주지 않고 대신 차가운 우유병을 손에 쥐여 주고는 할 일을 다했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진리를 진리로 가르칠 줄 아는 그런 분인데 말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저희의 마음을 빨갛게 색칠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식화되었다느니, 운동권으로 빠져들었다느니…… 다행히 저희 집에선 많이 이해를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한번은 방학중에 감기가 들어서 약국에 갔었는데, 그때 이름표에다 노란 리본('우리들의 선생님이십니다'라고 써어진)을 달고 갔더니 약국 아저씨께서 물지작한 몇 명의 선생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 모양이 됐다며 화를 내시더군요. 선생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이런 식으로 매도당한다는 사실은 정말 참기 힘듭니다.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의이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989년 8월 31일 최유리 드림

## 참교육이 실현될 그날까지 용기 잃지 마십시오

지금껏 저는 여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중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중의 상당수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신병훈련소의 교관 같았고, 감옥의 교도관 같았고, 학원의 강사 같았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뜻과 가치관에 따라서 학생들을 규제하고, 구속하려고만 하였고, 명문대학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대 지상과제인 양 우리들에게 생각보다는 암기를, 비판보다는 복종을 요구하며 닦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교육을 실행하시려는 선생님들을 교문 밖으로 떠밀어 냈습니다. 그들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보일 수 없었던 저희들의 무력함과 다수의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서 전혀 인정치 않으려 하는——대화마저도 거부하는——문교당국의 아비함에 원통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괴롭고 힘드셔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저와 저의 친구들은 선생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참교육에 대한 신념과 주장을 많은 친구들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결속력이 부족하고 무관심 속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설득시킬 용기를 가지지 못하여 학교 내에서는 아직은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았어도 저희들은 결코 선생님들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몇몇 친구들은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저희들의 가슴속에 세워져 있는 이상적인 교육, 이상적인 학교와 학생, 선생님의 모습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때까지 우리 힘내요.

1989년 9월 첫째번 토요일 제자 정대 올림

78 선생님, 사랑해요

## 이방인이 되어간다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초인간적인 일을 꾸몄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단순한 어떤 것을 수호했을 따름입니다. 어떤 단순한 것,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각자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달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짚어지고 일어섰을 뿐입니다. 그들은 비범한 이념에 몸을 바친 것은 아니고 위대한 목표를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모두가, 나도 당신도 인간적인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중에서

사회를 배우고 살아가는 동안 은연중에 알게 된 수많은 모순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배웠지만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높고 낮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절이고 이방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느낄 때마다 두려워집니다. 반복, 반복해서 뇌까려 보지만 정말 우리들은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나가면 수많은 어깨들과 등들이 부딪쳐 오지만 모두들 굳어 있고 어름장같이 차기만 합니다. 저희 학생들까지도 그러합니다. 자기들을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결을 떠나시게 되었는데도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능숙하게 잘도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너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도 남이었어요. 선생님들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현실의 절실함을 느끼면서도 용기있게 행동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홀로임의 두려움과 다수에의 분노가 함께 뒤섞여서 나를 괴롭히지요.

풍물 이틀째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할수록 신나는 게 이것일 거예요. 내일은 우리 풍물패의 이름을 정하고 발대식을 갖는 날입니다. 제 생각에는 '힘'이 좋은데 아이들은 이상하대요. 왜냐면 '무슨 패'라고 이름을 붙여야하는데 '힘패'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방학을 하는 바람에 선생님께

이 어둠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79

인사도 못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집에 가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지금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치만 지금은 만나면 안될 것 같아요.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난 뒤 선생님께 연락드릴께요. 그때는 꼭 저 만나 주셔야 해요. 안되면, 안되면 할수없죠.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세요? '사랑'이라는 건, 완벽하게 자신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거 이상이에요.

시계 소리가 또깍또깍 크게 들립니다.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리면 무서워요. 뭔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고 운명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석으로 시계를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눈꺼풀이 쳐져서요. 몸 건강하시고 제가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1989년 7월 20일 비가 수직으로 쪽쪽 내렸던 날 은정이가 드립니다

OO고교 2학년

우리들의 믿음, 변함없이 푸를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교원노조가 결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경해져만 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들은 저희 곁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리고 친구들이 믿어 의심지 않는 것은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1학년 6반 반창회를 열었습니다. 그리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약 20여 명의 친구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2학년 8반 교실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인 듯한 분이 올라오셔서 누구 맘대로 모임을 가졌냐는 등, 담임이 누구냐는 등, 남의 교실에서 뭐하느냐는 등, 실내화 신은 놈이 하나도 없다는 등…… 납득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저희들의 이름을 적고, 이것도 모자라서 교감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고, 교장 선생님께선 제게 잘못을 꾸짖는 전화까지 거셨답니다. 정말 순수한 저의를 가지고 모인 이 모임을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일로 교원노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하던 부모님마저도 팬스레 덤프다 너만 다친다시며 선생님 댁에 찾아가는 것조차 막아버리셨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참으로 여기며 따라야 하는 저희들, 그렇지 만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전 선생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설사 선생님께서 과연당하셨다 해도, 저희와 함께 저희와 종례를 함께 할 수 없다 해도 저희 담임 선생님은 '김'자 '희'자 '년'자를 쓰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에게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답니다.

1989년 8월 10일 미정 올림

## 우리들의 영원한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참교육! 이 세 글자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은 군홧발에 채이며 깊고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과연 이 참교육이란 날말이 이리도 무섭고 험악한 것일까요? 어른들은 '선생님들이 공부나 가르치지 저게 뭐하는 것이냐' 하며 편장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들의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하지만, 그런 소리도 참아내며 강한 억압도 참아내며 우리들의 선생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나, 둘 회생되어 가셨습니다.

좁디좁은 교실을 60여 명이 꽉꽉 메우고, 그것도 모자라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이 책받침으로 더위를 달래며 겨울에는 고물 난로에 조개탄을 넣으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보아도 우리나라보다 교육현장이 낙후된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언젠가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믿거나 말거나>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요즈음은 우리들의 친구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이란 좁은 문을 놓고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경쟁자들과 부딪쳐 찢기고 싸우다가는 끝내 자신의 삶까지 버리고 시험 없는 나라를 찾아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은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겨 놓으신 편지 때문이랍니다.

— 두고두고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이들아

아이들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울음에 지친 나머지 편지 내용을 다 듣지도 못했어요.

우리들의 이름을 이쁨이라고 지어 주신 선생님, 너무도 사랑하는 선생님 왜 우리 선생님이 해직당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들의 선생님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 선생님을 그들은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는 등, 사상이 불순하다는 등 어처구니도 없는 말을 빙자해 우리 곁에서 선생님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앉아 날개이자 희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언제나 조례 시간이면 빠뜨리지 않으시던 그 말이 이젠 귓가에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웃음과 여유로 우리를 대해주시던 그 얼굴도 이젠 뇌리를 잔잔히 스치고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9시 저녁 뉴스에 우리 담임 선생님과 몇몇 저희 학교 선생님이 비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나머지 전 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뱉어 본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선생님은 역시 그 남방을 입고 계시더군요. 우리들은 선생님이 그 남방을 입고 들어오셨을 때 마구 웃었었죠. 할아버지 남방이라고. 넓은 것에다가 옷솔기가 뜯어진 뒤를 촘촘히 째맨 그 남방을. 그런데 오늘 텔레비전에 비쳐진 선생님은 멋있어 보였습니다.

정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선생님의 꾸준하신 모습에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앞으로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이 교정에 다시는 못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왜지요? 우리 선생님이 도둑질을 하셨나요? 우리 선생님이 사람을 죽이셨나요?

우린 결코 선생님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선생님은 꼭 돌아오십니다. 그 웃음을 머금고 꼭 돌아오실 겁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 선생님이 저희 곁으로 돌아오실 바로 그때, 저희 학생들은 참교육의 깃발 아래에서 보기 좋은 나무로 커갈 수 있겠죠.

선생님!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들의 선생님  
윗분들은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셨나요!

왜 우리에게서 선생님을 빼앗아 가셨나요!  
왜 우리에게서 선생님을 빼앗아 가셨나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판한 저희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언젠가 그러셨죠?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당신께 고개를 숙입니다.

1989년 8월 제자 올림

OO여고 1학년

전교조는 이 시대의 양심임을 깨달았어요

신새벽 적막 속에

네 이름을 쓴다 참교육이여  
내 머리는 너를 잊는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참교육이여!

오늘은 공부라도 해볼까 해서 저녁 먹자마자 엄마한테 커피 좀 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언니가 한 대접을 타주더군요. 그걸 마시자마자 바로 끓어떨어져 지금에야 깨어요. 입이 텁텁해서 목욕하고 이빨을 닦고 나니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커피의 영향인지 날 밝을 때까지 말짱할 것 같아요.

새벽 2시. 창밖엔 불빛 하나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남들은 다 자는 새벽에 깨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되는 지금, 선생님께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밤을 하얗게 밝히렵니다.

지난 일요일, 선생님의 신념에 찬 모습을 대하고 전 또다시 부끄러워졌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감시자인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길들여져 있을 때 보았던 선생님의 모습은, 하나하나 잊혀져 간 자유에의, 참교육에의 목마름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아무리 내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더라도 그 목마름의 기억만은 묻어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보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한 순간도 나태하지 않으려는 선생님께 고작 제가 드린 말씀은 '선생님, 전교조는 과연 실천하고 있습니까?'였지요. 저

회 학교 교무주임 선생님께서 “전교조는 부르짖기는 해도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워듣고 제 의사인 양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선생님께서 한참 뒤에 “그런 말은 우리에게 무척 서운한 말”이라고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퍼뜩,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죄스러운 마음과 왜 진작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얹혀 제게는 지금껏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어요.

교원노조의 결성 자체가 실천의 움직임이었다는 것, 많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버티는 그 자세가 바로 실천이었다는 것을 왜 전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람들 중엔 지금 교육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교조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행동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말은 선생님이란 사람들이 노동자임을 자처하며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모습에서 과연 제자들이 뭘 배우겠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민중’, ‘혁명’, ‘폭력’ 같은 말들에 괜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특히 ‘폭력’이란 말은 지지리도 싫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매도할 때 ‘좌경폭력세력’이라든지 ‘폭력혁명’이라는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말들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어요.

전 데모든 농성이든 어떠한 개혁의 움직임도 폭력을 수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평화주의자라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저의 그런 평화주의자로서의 자궁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책을 읽고 차츰 허물어져 갔어요.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교원노조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책의 내용 중 지섭이란 인물이 이런 말을 했죠.

‘폭력은 때리거나 싸우고 서로 치고 받는 것만이 아니고, 난쟁이를 보고 가만히 방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폭력이다.’

이 대목을 대하자마자 허물어지는 ‘평화주의자로서의 궁지’의 소리를 들었어요. 방관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를요. 전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토록 잔인한 폭력을 서슴지 않았으면서 익살좋게 평화를 사랑하노라고 말했다니…… 이 제야 비로소 선생님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교조는 더 이상의 폭력행사에 대한 선생님들의 강한 거부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달에도 몇십 명씩 학과 성적 문제로 자살하는 아이들 앞에서 입지를 대비해서 정

답을 기차게 찍는 법이나 가르치는 것, 그건 잔인한 폭력이에요. 교무실은 어느덧 좋은 옷에 화장품 냄새 그윽한 멋쟁이 엄마들의 하얀 촌지가 물결치고 그렇지 못한 어머니는 학교 주변만 두리번거리는 그런 장소로 전락했고, 아이들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안 지 오래예요. 그걸 방관한다는 것도 폭력이에요. 선생님으로서의 폭력은 이것 말고도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폭력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는지는 몰라도 그건 너무나 엄연하고 확실한 폭력이었어요.

전교조는 다시는 그러한 폭력을 행하지 말자는 선생님들의 굳센 결의이자 이 시대의 양심선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천오백 명의 선생님들에 대한 해임 등의 교권 박탈,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 엄청난 수를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 숫자가 나오자 불현듯 엄청남을 느꼈어요. 그리고 비공개 가입자가 예전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니…… 이건 정부의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우린 역전하고 있는 걸요, 뭐.

선생님, 승리의 그날을 바라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다가 왜 갑자기 난리냐고 전교조를 우발적 단체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적어도 30년 전부터 전교조의 깃발이 나부끼 온 것을 알아요. 머지않아 언젠가는 우리 국토도 참교육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바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선 그 땅을 일구고 거름을 대느라 구슬땀을 흘리시지요.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고, 또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당당히 하늘을 우러르며 살기를 기원해요. 선생님, 혹시라도 지치시면 뒤에 있는 저희를 생각하시고 다시 큰 희망을 가지세요.

예전보다 수척해지신 모습이 안타까운데 부디 건강에도 유의하셔야 해요.

할말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내일을 위해 눈을 조금 붙여야겠어요. 가득 담긴 많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만 줄여야 할 때가 왔나 봐요. 신문배달과 우유배달 아저씨가 다녀갔고 멀리 동이 트기 시작해요.

이 부지런한 아침 같은 분에게 작별인사를 고합니다.

1989년 9월 11일 목마름의 기억으로 제자 선아 올림

##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정말 회한한 세상입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의 석방을 기뻐하고 축하드리는 학생은 용공분자요, 공산 빨갱이 사상에 물든 사람이고, 정치가라는 이름을 앞세워 온갖 부조리와 권력을 남용하거나 경찰 제복을 입고도 죄없는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자들은 참다운 민주주의자들이요,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이제껏 학생들에게 저지른 경찰들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학생들은 모두 분노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띠우니 저희들의 이 한맺힌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1989년 8월 30일. 이날은 변소가 있는 방, 쇠창살 사이로만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감옥 속에서 수고하시던 성충호, 이원영 선생님께서 석방되시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몇 명은 몇 푼 안되는 돈이지만 정성껏 내어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만 따로 하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신 관계로 민족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환영식을 끝낸 저희들은 선생님과 축하 사진도 찍고 준비된 음식도 먹으며 이제껏 못 나눈 정다운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흐르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 2명이 집으로 가는 학생 2명의 멱살을 잡고 신분조사를 한다며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가 구타·협박을 하고 용공분자라면서 심한 유타리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받는다는 그 자체가 의식화 과정인데 어른들은 의식화란 뜻을 제대로 모르는 채 저희 학생들을 좌경의식화에 물든 학생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좌경의식화 교육을 받았고 공산 빨갱이 사상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른들이 이제 막 눈을 뜨고 깨어나려는 학생들에게 그렇듯 심한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다니 바로 그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구속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선생님이 남겨 놓고 가신 교실은 늘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선생님의 정든 잔소리가 그리워 울었고, 수업거부·농성·침묵 시위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은 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억압했습니다. 그런 뒤 교무실에 있는 학생 사진 수첩에는 몇몇 학생들의 이름 아래에 파란색으로 줄이 그어졌고 일부 선생님들은 저희들을 제적시키겠다는 협박마저 서슴없이 하는가하면 부모님께 찾아가 유파지르며 문제 학생으로 매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까?

저희들에게 참교육을 시키려 하셨고 몸소 실천하시며 무언의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은 구속, 직위해제, 파면시키고, 남은 분들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보내는가 하면 그분더러 죄악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평균 점수가 미래 남편의 월급액이 되므로 공부만 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 저희들의 참스승이란 말입니까?

학교라 하면 인간됨을 중요시해야 하며 학생들의 성적보다 인격을 존중해 줘야하는데 현교육은 성적이 좋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우세하고 모범생이라 하니,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은 미술도 음악도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고, 인간성도 나쁘고 사회에서 혼히들 말하는 낙오자요 농땡이 학생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소위 배운 자들이라 불리는 정치가들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떳떳하게 경찰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행했던 잔인한 행위들에 의해 불쌍하게 죽어 가고 피해 입은 우리 학생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는 '가정통신문'이라고 보낸 글에 같은 동료 교사이면서도 '참교육을 외치는 교사는 죄악무리로 밝혀졌다'라고 한 비난한 글을 읽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른들에게서 우리 학생은 진리가 무엇이며 진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은 참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생소하지만 언젠가는 저희들 곁에 확고하게 자리잡으리라 믿습니다.

1989년 9월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 올림

## 교육의 주체는 저희들이잖아요

글조차 띠우기 어려운 밤에……

선생님 기억하세요. 중 2때 제가 처음 쓴 편지 첫머리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선생님께'라고 썼었지요. 선생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지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어요.

방학 전날 선생님을 불들고 벅찬 감격을 안은 모습으로 한 말은 "선생님이 자랑스러워요"였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문정아, 미안하다…… 선생님 탈퇴했어……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구나"하고 선생님은 뒷말을 채 잊지 못하셨지요.

선생님, 탈퇴 소식을 듣고 저의 작은 가슴속에 무엇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무너짐보다 전 선생님을 더 자랑스러워하는걸요. 탈퇴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선생님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모두 이해하는걸요. 선생님, 전 싫어요. 당당하지 못한 선생님의 모습은 저를, 아니 저희들을 더욱 슬프게 해요. 당당한 선생님의 모습이 더 좋은걸요.

선생님, 이대로 무너지면 어떡해요.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씁쓸한 패배를 잊고 다시 투쟁(?)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 패배에 휩싸여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돼요. 이제 겨우 우리 것을 알려 하는데, 이제 민족을 아는데, 이기적인 우리들이 이제 겨우 인간적인 따뜻함을 배우는데, 이제 학교가 좋아지는데…… 다시 친구를 경쟁자로, 또 숨이 탁탁 막히는 교실로, 민족을 원수로, 다시 서구화에 미치는 이기적인 저희들로 변하는 권위적인 교육을,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도 모를 공부를 또다시 시작하리구요?

선생님, 교육의 주체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왜 돈 많은 사람이 몸 부림치는, 입시밖에 모르는, 민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밑에서 또 다시 외롭게 외롭게 학교에 다녀야 하죠? 왜죠, 선생님?

정말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필요한걸요.

탈퇴에 괴로워하는 선생님이 아닌 당당한 그리고 떳떳한 예전의 선생님의 모습이 보고픈걸요. 너무도 그리운걸요. 선생님은 갈대이잖아요. 부리지지 않는……

선생님, 이젠 제 자신의 나약함이 밉네요. 교육의 주체인 우리들이 참교육을 침해하는 그들에게 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셨죠. 이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해요. 우리들의 교육은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와 선생님이……

저희들 마음이에요. 초롱초롱한 저희들 눈을 보며 국사책을 덮을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현실,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우리들.

선생님, 이제 우리 같이 이루어요. 제 동생들은 괴로워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공부하지 않도록…… 선생님 이제 힘내세요!

더 이상 저희들을 슬프게 마세요. 선생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웃는, 그리고 역사 앞에 떳떳한 그런 인간적인 인간으로 자랄께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양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인간으로 자랄께요. 이제 선생님도 우리 앞에서 당당하세요.

선생님 힘내세요. 그러면 우리도 힘이 나니까요. 정말 강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고 싶어요.

1989년 8월 사랑하는 제자 올림

##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무더운 여름 날씨와 전교조에 대한 당국의 탄압 속에서도 몸 건강히 잘 계십니까. 비 내리는 이 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난 것 같아 막 창문을 열고 보니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였지요.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에 누구에겐가 하소연을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없어 문득 선생님을 떠올리곤 펜을……

선생님,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고독하고 좌절을 당할 때 한쪽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외로워요.

사랑하는 어머니——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나를 옮은 길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모든 일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우리 가정은 파산되었어요. 난 우리 가족을 위해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았지만 모든 것은 실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다 해봤지만……?

선생님, 옛날 유명하던 바로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군요. 그 노래는 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학교에서 들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 노래가 돌아오는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구요? 정말 떠나 버린 것은 아니니까요. 선생님, 오늘 밤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 반 아이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선생님께서 다시 돌아오실까 하는 의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가져다 준다면 저와 우리 반 아이들은 선생님의, 참교육의 종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을 부르기만 하면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은 선생님 마음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교에서 떠나 슬퍼질 때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것을. 또 고난이 몰아쳐 친구도 찾을 수 없을 땐 거센 물결 위의 다리와 같은 우리 반 학생들을 생각하십시오.

선생님이 책자에 있거나 어느 낯선 곳에 있어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글을 보시는 선생님, 잠시만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은 세상의 순리라는 것을. 순리를 거역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거역하면 큰 불행만 갖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순리를 이기는 방법은 '참다운 사랑'과 '참다운 진실'과 또 '참다운 행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 다음 학기에 만나 뵙게 되길 바랍니다.

1989년 8월 성산포에서 성훈 드림

## 대체 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까

스산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듭니다. 전 결코 1989년의 8월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조차 어색해지는 이 마당에 전 제가 설 자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쓰려 와서 차라리 땅을 치며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가 난들, 가슴이 아픈들 어찌 선생님 심정의 십분 아니 백분의 일이라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생님께 편지 올리는 것도 벌써 네 번째인데, 언제나 이런 침울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자신이 정말 싫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밝고 명랑한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사춘기 소녀의 재치와 센스를 담은, 읽고서 한바탕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 해요. 잘못된 현실 속에서 나의 선생님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신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를 떠나고 계셔요. 교단을 물러나고 계시다구요.

어제 애들이랑 선생님이 오셨던 소리에 빙기 위해 교문까지 나섰지만 불과 2~3미터 앞에 선생님을 둔 채, 저희들더러 돌아가라는 또 다른 선생님들의 저지로 대항할 용기조차 잃은 채 눈물을 머금으며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저흰 약했습니다. 저흰 비겁했습니다. 단지 얼굴 한 번 보자는, 작별인사나 하자는 선생님과 저희의 호소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제 가슴엔 씻지 못할 상처만 남았습니다.

대체 누가 선생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습니까? 정말이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슬퍼서……

선생님이 대체 무얼 잘못하셨죠? 잘못도 없으신 선생님을 말없이 떠나 보낸 채 나몰라라 하며 저희 공부나 하란 말입니까? 저희들의 감정마저 공부로 옳

아매고 인간관계마저 철두철미하게 청산해 버리는 이것이, 선생님을 떠나 보내면서까지 피눈물나게 공부해야 할 과제입니까? 결과입니까?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공부 이전에, 우등생이기 이전에 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싶습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싶습니다. 옳은 일에 용감하며 그린 일에 부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인간이고 싶습니다. 어서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큰소리로 울 수조차 없는 세상일지라도 전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 뵈 것으로도 감사하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손가락질해도 저는 선생님이 옳다고 믿기에 당당하게 선생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의 희생은, 저희 가슴에 새겨진 이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아마도 참교육의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옳고, 우리가 믿는 바가 옳은 이상 저희가 추구하는 참교육은 기필코 실현될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설 자리는 교단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꼭 교단에서 지식의 전달자인 입장을 넘어서서 저희 참인간으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의 선배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비록 선생님들의 큰소리에 대꾸 한번 못 하고 물러서는 저희들이지만, 속으로 다만 선생님들을 야속하다 생각만 하는 용기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선생님 곁에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선생님은 저희들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전 선생님을 존경할 겁니다. 부디 용기 잊지 마시고 건강하셔요. 이만 줄입니다.

1989년 8월 27일 제자 유은주 드림

## 이제야 인간다운 선생님을 만났다 여겼는데……

종례 후 앉아 계신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나 도저히 어떤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돌아섰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올바른 정화작업을 저희는 마음 속 깊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칭찬에 어색한 저희들이라 선생님 앞에서 재롱만 피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침까지 뛰겨 가며 시를 읽으시던 선생님 모습이 그렇게 정다울 수 없었는데,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시던 선생님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그런 선생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통해 본 선생님들의 인상은 좋은 쪽보다 나쁜 쪽이 더 많았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선생님, 부자나 공부 잘하는 애만 좋아하는 선생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선생님 등등 저는 한때 선생님들을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고1이 되어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선생님을 존경했고 모든 일에 담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인간다운 선생님을 만났구나' 하며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쫓겨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교육을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나…… 저는 이 현실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삼정입니다. 너무도 모순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시켜 주기 위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을 지지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결코 힘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 선생님을 위해 기도도 바치겠습니다.

1989년 7월 20일 제자 김택균 올림

##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끝없이 내리는 장마비를 바라보노라면 뜨거운 햇살, 푸른 하늘이 마냥 그리워집니다. 이맘때면 항상 우리 주위에 자연재해 때문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다 해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결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방학한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군요. 참으로 한 것도 없이 숨가쁘게 지나간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친구들과 함께 비를 맞으면서 시내에 나가서 영화와 연극 한 편씩을 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운동화가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극을 본래 좋아했지만 어제를 계기로 더욱더 연극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지요. 연극 제목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어요. 책을 읽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연극을 보면서 역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석대라는 한 아이의 삶이 무너져 가는 내용을 통해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석대라는 아이보다는 그 반의 아이들이 더욱더 싫었고 더욱더 야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꼭 이 시대의 사람들 같기도 했고요. 어찌 됐건 옳지 못한 몇몇 사람들에게 의로운 다수가 억눌린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커다란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을 보면서 선생님들 생각도 했지요.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서는 굽힘이 없이 나아가며 바로 되지 못한 것은 바로 고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지를, 공부에만 짜들고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미워하는 것을 배운 우리들이 자라서 만든 사회가 과연 얼마나 자유롭고 또 서로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 자신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군요. 그 대답을 떳떳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더

우 많아지는 사회가 되도록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선생님을 마지막 뵙던 날이 생각납니다. 선생님께 편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해드릴 수 없어서 무척 섭섭했지요. 마지막으로 교무실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나오는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눈물이 흥 돌더군요. '이제 개학을 하면 선생님의 얼굴은 못 뵙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찮습니다. 선생님은 꼭 저희들 곁으로 오실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선생님도 용기를 내세요.

저는 8월 7일~10일까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작년에 갔었던 전라도 변산기도원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 정말 너무 좋았었지요. 변산에서 보았던, 별이 가득 찼던 그 하늘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별들을 모두 내 품안에 넣고 싶었는데, 도시의 삭막한 환경을 떠나 시골로 간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참 즐거운 일이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신앙심을 단련시키고 자연과 여러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3박 4일 동안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어요.

고등학교 생활 1학기를 되돌아보며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진한 것 투성이라는 생각에 새삼 '성실'이라는 단어를 꼽씹어 봅니다.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너무 많이 회생시켰던 것 같구요. 저희 생각과는 참으로 빛나간 후회 많은 1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1학기 동안 겨우 두 권밖에 못 읽었으니 좀더 책 읽는 것에 투자를 해야겠어요. 이 시기에 안 읽는다면 영영 못 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맨 처음 선생님께 팬을 들 때는 쓸 말이 무척이나 많았었는데 막상 쓰고 나니 별 내용도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군요. 하지만 아직도 한 달 가량 방학이 남았으므로 그동안이나마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도록 노력할께요. 더욱더 성숙되고 무엇인가 이루는 이 방학을 만들겠어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8월중에 친구들과 전화드리고 한번 놀러 갈께요.

1989년 7월 28일 제자 수원 올림

온양OO종고 1학년

## 이 가난을 아시나요?

눈을 떠보니 9시였습니다. 토요일 밤은 늦게 자는 거려니, 그리고 일요일은 늦게 일어나는 거려니 하는 생각이 이제 뿌리박혔나 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아니 졸업식이 끝난 후부터 저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께 단 한 번도 부치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꼭 부치리라 마음을 먹고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제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에게 느낀 실망과 제 관점에서 본 선생님의 모습 등을 쓴 뒤 조금 속이 후련해짐을 느끼며 편지를 책가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공부를 해야겠기에 친구네로 갔습니다.

순임이, 정숙이, 저 이렇게 셋이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서 장난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선생님댁에 걸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전화만 걸지 않았어도 제가 선생님과 그렇게 먼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책가방에 넣어 두었던 편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결국은 선생님도 저와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계실 뿐이라고 느끼면서.

그러나 어느 날 날아든 선생님의 편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된 것인지, 값싼 동정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 무척 신기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우리보다 가난하지 못한 선생님이 더 많은 가난을 느끼고 아파할 수 있는지.

선생님, 가난이란 그렇게 값싼 동정의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란 것은 결코 부자들이 입에 올릴 것이 못됩니다.

선생님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공부는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태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런 생각

으로 사셨을까요? 우습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보는 책을 어깨 너머로 본 일 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인지 매우 흥분된 글을 쓰셨더군요.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한 학생이 광산에서 일하는 아빠에 대해 쓴 글을 읽고 매우 흥분했다며 “만약 공부 잘하는 놈들이 썼다면 ‘우리 아빠는 산업전사’라고 썼을 거다”라고. 우스웠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이니 대학을 나왔을 거고 대학에 들어갔으니 그분도 ‘공부 잘하는 놈’에 길 테고 그분이 존경해 마지않는 이오덕 선생님 역시 그려실 테지요.

월급이 18만 원밖에 되지 않는 우리 아버지. 더구나 오빠와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부모님과 동생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우리 아버지.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 제 앞에서 ‘이 땅의 가난’을 말하시는 선생님. 월급이 우리 아빠의 두 배는 될 테고 그 돈을 선생님 혼자 쓰실 수 있는 분이 가난, 가난 하시고……

지금 제가 바둥대지만 결국 대학에 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둥대고 있는 것은 꼭 선생님이 되겠다는 버리지 못한 꿈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야간자율학습까지 하고 집에 오면 식구들은 저를 어디서 놀다 온 아이로 생각하니까요. 그럴 때면 당장 때려치우고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서 7번 채널밖에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시고 혼들리는 화면을 보시는 할머니께 리모콘이 달린 텔레비전도 사드리고, 엉덩이를 넓게 기운 옷을 입고 계신 할아버지께 비단으로 만든 한복도 사드리고 싶고, 장이 나빠 고생하시는 엄마께 장세척도 시켜 드리고 싶고, 단벌옷의 아빠에게 양복도 몇 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늙으신 몸에도 날마다 논밭에서 시달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편히 쉬시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이 가난을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이 가난에서 몸 부림치는 사람들의 설움을 어떻게 아세요. 편지를 써놓고도 우표값이 없어 못 부치던 때의 아픔을 겪어 보셨습니까? 전화세를 내지 못해 한동안 전화가 끊긴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모르시죠? 값싼 동정의 말 따위는 집어치우세요. 그런 말 들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 없어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 가난을 느끼기 전에 벗어나고 싶어요. 빠져 나가고 싶어요. 괴로움에 못 이겨 술을 페마시고 밤늦게 돌아오신 아버지는 문을 부수며 소리소리 지르시고, 유리창을 깬 손에 피를 뚝뚝 흘리시며 우시는 아빠, 엄마를 때리시고 욕

하시다가는 끌어안고 우시는 아빠의 마음을 선생님이 아세요? 이 지겨운 가난을 아세요? 몰라요. 가난해 보지 못한 선생님이 뭘 아세요. 12시면 술을 먹고 소리지르는 삼촌은 제가 그리 미운지 저를 붙잡고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고 그렇게 2시까지 시달리다 학교에 가니까 졸고 열등감에 싸이고.

그렇게 살아 보셨나요? 더 이상 사람을 비참하게 하지 마세요. 늙은 몸을 이끌고 죽으라고 지으신 마늘 농사. 그 마늘이 똥금이 됐을 때의 아픈 심정을 어떻게 저의 할머니보다 선생님이 더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위선이에요. 선생님은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전 솔직히 상타는 걸 좋아해요. 웬지 아세요? 상탈 맨 너무 부끄럽고 싫지만 엄마, 아빠는 그걸 보시고 좋아하시니까요. 그래서 상타고 싶어요. 자랑이라곤 아들딸 공부 잘한다는 것밖에 없는 엄마, 아빠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펜을 들었을 맨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아픔을 감추기 위해 학교에서의 은경이는 수다쟁이고 명랑한 척합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니까요. 솔직히 전 팝송을 모릅니다. 모두들 잘 부르는 (카멜레온)이란 노래와 너무나 유명한 ‘아하’라는 그룹, 그 그룹도 이름밖에 몰라요. 멤버가 몇 사람인지 몰라요. 샹송이 프랑스 노래라는 건 알지만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고 칸초네는 뭔지도 모릅니다. 스승의 날, 그날 저는 제가 아는(연예계 쪽) 모든 것을 말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싫어할 말만 골라 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도 차라리 철저한 미제의 찌꺼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건 비록 선생님이 뱉어 낸 말이 값싼 동정일망정 그 속에서 조금은 농촌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 가난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무서운 가난……

오늘도 할머니는 콩을 돌보시고 삼촌은 퍼머한 머리를 빗고는 술 마시러 나갑니다. 요즘은 기름 때에 절어 공장에 나가시는 엄마는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수금에 쫓깁니다. 모든 것이 아파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론 이 가난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내가 미울 뿐입니다. 선생님의 삶이 어떤지 몰라도 저의 삶은 선생님의 삶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충실히 살겠습니다.

제 주위엔 너무도 배울 게 많습니다. 이제껏 가난 타령만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음도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책에서

도 조금씩 배워 가겠습니다. 언젠간 선생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겠지요.  
이제껏 저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선생님께 나쁜 말만 한 것 같습니다. 흥분되  
다 보니 이 가난의 책임이 선생님께 있는 것같이 탓만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  
냥 너무나 가난한 한 학생의 넋두리쯤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 변명이나 할 줄  
아는 그런 천한 아이로.

선생님의 말들이 동정이 아닌 진실이란 걸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지  
금도 조금은 알 것 같지만.

안녕히 계세요.

1989년 9월 11일 이은경 올림

경남 OO고교 1학년

## 우리 선생님, 화이팅!

눈살 찌푸려지는 따가운 햇살로,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찾아듭니다.

온통 땀줄기가 등으로, 이마로 줄을 타고 흘려내리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쁘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녀 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더위에 지쳐 두 다  
리로 지탱해 서 있는 것조차 힘들고 쓰러질 듯 기운이 없을 때면 항상 선생님  
의 자랑스런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허약해지신 선생님의 건강이 점점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난 후면 저의 몸 한구석을 잘라내는 듯 아파 온답니다.

병원에선 병명을 모른다고 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락병원의 의  
사는 돌팔이인가봐요. 왜냐구요? 단지 선생님께선, 선생님의 사랑스런 제자들  
과 같이 웃으며 이야기하지 못하게 떼어 버려서 마음의 병이 생겨서 그러는 것  
인데 너무 선생님 마음을 몰라 주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병을 고치도록 열심히 뛰어다닐 거예요. 기도도 하구요.

별님! 선생님께 힘과 용기를 주세요. 선생님이 자꾸 허약해지시니깐 마음이  
아파요. 건강하셔야 선생님을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도 힘이 생기지요.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선생님을 믿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두 눈엔  
눈물이 꽂여 있답니다. 지금껏 선생님께 많은 것들을 받아 온 제가 지금 이 시  
간에 조금이나마 선생님께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  
습니까?

전 이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  
다. 너무나도 인정이 메마른 사람들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구요. 저희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귀찮다는 듯이 마구 대하는 것에 저희들은 너  
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저씨들이 미워요.

선생님께서도 우리들같이 근사한 계획과 함께 즐겁고 알찬 삶을 살고 싶어하  
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채 왜 저렇게 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생님의 그런 넓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선생님이 자랑스럽기만 하답니다. 선생님의 제자인 것이 더더욱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하답니다.

선생님! 전 하루 일과중 선생님 면회 가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긴 하지만 한 번 만나 뵙고 나면 하루를 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선생님의 부으신 몸과 굉장히 불편하신 몸을 저희들에게 감추려고 애쓰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약한 모습, 우는 모습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더 아파하실까 봐, 아니 약해지실까 봐 참을 거예요. 녹슨 철과 두꺼운 유리 두 개로 가로막혀 있어서 선생님 얼굴, 목소리조차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에 화가 납니다(망치 가지고 가서 부수어 버릴까 봐요).

그 철망은 선생님과 저희들의 짧은 만남조차 중간에서 갈라놓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3~5분간의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아쉽고 옆에 순경 아저씨가 약속하기만 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의 따뜻한 손도 만져 보고 아무런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선생님과의 만남이 언젠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편지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읽어 봅니다. 비굴과 만용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런 수업을 저희들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회로만 고교 시절을 마치기 보다 좀더 참되고 진실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생님도 저도, 아니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화이팅을 외쳐 봅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과 웃으며 고합지르고 땀흘려 가며 그전처럼 정답던 수업을 하기엔 어려우실 것 같다는 말씀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 모두 희망이 없잖아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약속입니다. 아셨지요?

선생님! 지금 전 선생님 사진을 보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자꾸 불러 보고 싶어요. 웬지 면회 끝날 때처럼 팬을 놓기가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만 줄일께요.

우리 선생님, 화이팅!

1989년 7월 22일 은미가 영원한 저희들의 선생님께 드립

104 선생님, 사랑해요

서울 ○○고교

우리들의 한마디!

- 교조의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기둥도 되어 주십시오.
-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 민주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자랑입니다.
- 이상을 향해 나는 정의의 딱따구리가 되시길.....
- 참교육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찬란한 새벽과 함께 희망은 다시 솟아오릅니다. 지금은 어두운 때이지만, 그러나 어둠은 사라지고 아침이 밝아 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의연한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움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퇴보하더라도 곧 다시 전진합니다. '전교조=참교육'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선생님 같은 분들에 의해 굴러가는 것입니다.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 정당하시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생님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모습도 그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위험과 희생을 등으로 맞아 가며 품안에 제자들을 껴안으시는 선생님! 그러나 이젠 저희들도 품안에서만, 선생님의 따뜻함만을 만족해 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지금 학교는 직접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나서는 학우들과 더욱더 학업에 열중하는 학우들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젠 선생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을 우리 제자들이 큰사람, 된사람, 든사람이 되어서 걸어가겠습니다.

1989년 8월 제자들의 목소리를 선생님께 드립니다.

이 어둠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105

## 선생님을 사랑해요!

항상 깨어 있는 선생님과 항상 옳은 길만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3—7반 일동)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용기 잃지 마세요. 모든 소망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할께요.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저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마세요. (3—5반 일동)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이별은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지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이별은 슬프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희망 속에 이별하였기에

슬픔이 슬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K.J.H.)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찬 생활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사랑해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세요. (2—7반 일동)

저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주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3—7반 일동)

선생님! 보고 싶은 선생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겠어요. (2—6반 일동)

선생님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저희들은 선생님을 영원히 사랑

하고 존경해요. 선생님께서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세요. (3—3반 일동)

더욱더 밝은 미소로 저희들 대해 주시고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힘차고 명랑하고 맑게 살아가요.

선생님, Love You! (3—4반 일동)

선생님, 힘내세요!

언제나 선생님을 지켜 주고 싶어요.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와주세요. 저희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동안 '사랑해' 윤리 수업을 들었어요. 다시 윤리 수업 받고 싶어요. (3—8반 일동)

선생님 화이팅! 용기를 내세요. 윤리 수업 하시려 저희들 곁으로 오시리라 믿어요. 꼭 다시 만나게 되리라 믿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자상한 모습 언제나 변치 마시고 용기 있고 굳굳한 의지로 꼭 승리하세요. (2—8반 일동)

저희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을 저희들은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예요. (2—7반 일동)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저희를 지켜 주시리라 믿고요, 저희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되겠어요. (3—7반 일동)

\* 이것은 이영래 선생님의 책상에 놓인 달력에 학생들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날, 저희 교실에 맨 처음 들어와 주세요

내일은 노태우 아저씨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우리 선생님 돌려주세요. 저희가 책임질께요……’라고.

만약 안 들어주면 대통령 아저씨가 아무리

‘믿어 주세요……’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존경하는 선생님께

더워서 짜증을 내던 계절인 여름도 가을이라는 낱말에 의해서 모두에게 멀어져 가고 있음을, 강한 태양 대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피부에 와닿음을 느낄 수 있어요. 덥지도 춥지도 않아 생활하기가 편해서 좋은데, 아침에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유인물에 '차가운 바람이 선생님들을 더 서늘케 만든다'라고 써어 있어서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많이 아프셨죠?

선생님께서 강제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계단에서 미끄러지시고 책, 신발이 다 날아가고.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저희들 마음 또한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선생님으로서 그럴 수 있는지 ..... 선생님을 그렇게 끌고 밀고 하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교실에 가서 막 울었어요. 점심은 드셨는지 걱정도 되었구요. 대신 아파 드리고 싶었어요. 교원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문교당국,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서 징계하려고만 하지 선생님들의 참뜻도 몰라주는 문교당국, 그리고 국회에서는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모두 미기만 해요.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 거기에 얹매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바쁜 인간을 길러 낸다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다 보충수업이다 해서 꽁꽁 묶여 있어야 하는, 자율학습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 자율학습이겠어요. 자율 아닌 타율 학습이지요. 선생님이 계셔야만 조용하고 가시면 다시 떠들썩하고, 공부, 대학, 경쟁, 시험이 다 뭔지 성적 떨어졌다고 집에서 학교에서 혼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학생들. 학교에 가나 집에 가나 두렵기 때문에 방황하고 나쁜 길로 빠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왜 어른들은 저희 마음을 몰라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선생님께선 저희의 이 심정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고 이해해 주시겠죠? 날로 높아 가는 경쟁 때문에 남은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리고……

도덕 책에는 중·고교 시절이 참다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에서 하나 더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야만 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성적이라는 올가미에 얹매여 허우적거리는 모습들, 내가 아닌 남은 다 나의 적일 텐데요. 왜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 대접 해주는지, 대학 못 간 사람은 인간도 아닌지, 어떻게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 비겁한 자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공부가 하나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앞날이 어떨지 눈에 어리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로보트 돌멩이처럼 딱딱한 사람이 들킬거리는 사회. 선생님들은 3분의 1의 소수만을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들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3분의 2는 반을 채워 주는 일만 하면서 종이 치기를 기다리고 수업 시간엔 두려워하고 멍청히 앉아 있으면 하잖아요. 3분의 2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은 오직 공부해라 이 말뿐이고…… 왜 3분의 1의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배고파야만 하는 노동자들,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누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배불러 하는데, 또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도 언제나 적은 임금에 시달려야 하고, 5공화국 때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독재가 판을 치구 민주주의를 외치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면서 감옥에 잡아들이는, 국가보안법이 뭔지는 몰라도 나쁜 법이에요. 악법도 법이라서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악법은 개선해 나가야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교장, 교감, 주임(윤리, 체육, 학생) 등 그리고 평교사, 왜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교무실에까지 사회의 독재정치가 옮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위로부터의 지시만 받아서 전달하는……

이 사회는 왜 바른말 못하는 벙어리들만을 강요하는지요? 선생님께선 제자들과 인생을 이야기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던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들만 머리에 꽂 메워서 대학 가서 잘사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가 더 재미있고 공감이 가요. 선생님께서 살아 숨쉬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공감도 하

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은데 선생님들에게 그런 말씀도 못하게 하고 의식화교육이니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너무나 싫어요.

뜻있는 선생님들께서 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시고 문교부의 부당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교단을 떠날 수 없다는 선생님의 용기에 저는 큰 박수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선 지금 이대로의 교육방식, 교육환경에 반대하시고 비겁한 제자가 아닌 보다 자율적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제자들로 만드시고 싶으시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죠? 선생님 같으신 분이 계시는 한 이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하나되어 덩실덩실 춤출 밝은 사회가 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선생님의 굳은 의지와 신념 잃지 마시고, 선생님 곁에는 수백의 아니 수천의 총총한 눈망울들이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공부를 해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삭막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옳고 그름, 사회를 바로 바라보는 비판력 등을 갖춘 민주시민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친구들과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살짝 훔쳐보는 게 제겐 학교 다니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해요. 선생님, 저희 반 생물을 가르치시지 않아서 처음엔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젠 선생님께서 ○○여중의 교단에서 계속 머물러만 계신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선생님,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도 선생님을 잊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께서도 저희들의 이 마음 잘 아시겠죠?

선생님 힘내세요. 그리고 용기 잊지 마세요.

1989년 8월 24일 3학년 10반 제자 최영자 올림

그날, 저희 교실에 맨 처음 들어와 주세요 113

##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은 아픔

### 존경하는 선생님께

어둠이 짙게 깔린 가을 밤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오늘 밤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여요. 어둠이 짙게 깔린 하늘이 바로 모순된 오늘의 세상이라 생각하고, 어둠을 밝혀 주는 별들 중의 하나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얼굴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5월 말부터 시작되어 8월 말까지 징계의 회오리 속에서 선생님을 못 뵙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니길 바랐는데 8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하신다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 오는 순간 말못할 서러움에 눈물만 자꾸 흘렀어요. 선생님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 운동장으로 달려나갔지만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닥의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했어요.

선생님과 제자를 그렇게 갈라놓아야만 했던 정부와 문교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명령에만 순응하는 노예적인 인간을 원하는 듯해요. 민주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교단에 남아 있게 되면 자기들의 온갖 비리들이 탄로날까 두려워 교단에서 쫓아냈어야만 했겠지요. 학생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고 옳은 것을 가르치고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 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고 문제교사라고 해서 쫓아내는 실정이니 저도 안타깝기만 해요.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해라’,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보다 진실을 깨우쳐 주시고 항상 바른길로 올곧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불의에 대항하는 정신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 주시는 선생님을 저는 존경해요. 당국에서 아무리 왜곡된 선전을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넘어가지 않겠어요.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자들을 중오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미워만 하지 말고 그들이 잘

못을 뉘우칠 때까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교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퇴만 강요하는 당국. 선생님들의 참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전교조를 탄압하고 탈퇴하지 않은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는 행위를 수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손에 힘이 모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문교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그래야만 밥줄이 끊이지 않을 테니 당연겠지요) 무조건 순응하는 교장·교감·주임이라는 사람들이 불쌍도 했어요. 타학교에선 출근 투쟁하시는 선생님을 업무를 방해했다고 교장이 고발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윗사람에게 머리나 굽실거리고……

요즘엔 아침에 등교할 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느라고 교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수업을 감시하는데, 그것은 선생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되어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 의식화교육이 뭐예요? 저는 의식화교육이란 거짓된 것을 바로잡아 바르게 가르치는 행위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식화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교과서 위주의 수업방식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많이 읽으려 하고 있어요. 작년 담임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책만 읽으라 하셨는지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생각을 넓고 깊게 해주고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노동자들이, 항상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배고파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교과서에 민주주의 사회라고 써어 있어서 정말인 줄 알았거든요. 또 대학생들이(공부 잘 한다는 오빠들) 경찰과 맞서서 화염병이나 던지면서 시위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오빠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서서히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생님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현정권의 부도덕성에 분노가 치밀기도 해요.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는 쓸쓸한 교장을 거닐다 보면 선생님 생각에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선생님과의 헤어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은 아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도 선생님 뒤를 따르리라 마음 단단히 먹기도 해요.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 선생님 같으신 분이 계시는 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피해 보는 삶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정말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엔 성적보다 인간됨을 중시하는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 믿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저희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날도 반드시 오리라 믿어요. 옳은 것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잖아요.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시는 선생님의 굳세고 힘찬 외침이 제 귓가에 들려 오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모든 그릇됨이 물러나고 옳은 것이 승리하는, 전교조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세요(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가르친다는 것은 투쟁하는 거래요. 옳은 것을 가르치고 양심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선생님의 노력이 오늘은 작은 불꽃이지만 내일엔 아주 큰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르리라 저는 믿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아낌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사실은 선생님과 헤어진다니 슬퍼서였어요). 모순된 역사의 낡은 수레바퀴를 한 발 한 발 밀어 떳떳하게 역사 위에 설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리라 믿어요. 오늘의 헤어짐이 그 낡은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힘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아픔쯤은 거뜬히 물리칠 수 있어요(제 속마음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한반도의 모순된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 우울해요. 선생님의 노력이 밝은 내일을 기약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는 소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의 의지 굽히지 마셨으면 해요. 거친 별판에서도 새싹이 돋듯이 비록 암흑의 세상이긴 하지만 내일의 세상은 밝게 빛나는 화이트 빛깔의 평등사회가 되리라 믿어요. 경쟁과 불안감이 앞서는 무서운 교실이 아닌, 사랑과 믿음과 화해가 있는 그런 교실에서 선생님과 진실되게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선생님 밑에서 참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 생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은 제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아름답지도 못했던 1989년이 이젠 백 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벌써 제 나이 열일곱이 다 되어가는데 생각이 없고 멍청해서 두려워요. 속으로 알찬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도 많이 하고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으로 일기도 쓰고 있어요. 신문도 읽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려고 해요. 저도 선생님처럼 멋있는(?) 민주시민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데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이만 줄일께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

1989년 10월 3일 최영자 올림

서울 ○○중학교 3학년

아아, 선생님께서 매를 맞으시다니

저번에도 편지를 한 통 썼는데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았었는데 보셨는지요.

선생님께 저희 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고달프신 모습과 여러 선생님과 싸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성을 마음껏 터뜨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왜 이렇게 밉고 알미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보다도 선생님을 괴롭게 만들고 커다란 상처를 입게만 하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미워집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저희 맨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의 그 참혹한 광경을 저, 아니 모든 학생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부르짖으시던 그 커다란 절규와 함께 빠져 나오시려고 여러 번 몸부림을 치시던 선생님의 모습, 그건 바로 저희들의 가슴을 칼로 찔는 아픔보다도 더한 것이었으며 선생님께서 맞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분노와 눈물을 한동안 참지 못하였고,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막 떨리고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리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참겠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어 피가 나더라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암흑에 짓밟혀 혼적도 남지 않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선생님만은 한 가닥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저희들 앞에서 몰래 훔치시던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지칠 대로 지쳐 초점마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눈동자는 저에게 커다랗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을 받았었던 저, 아니 모든 친구들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로 괴롭고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우실 때에는 저희들의 밝은 모습을 생각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럼 안녕히……

1989년 8월 25일 선미 올림

## 교직원노조는 꼭 이루어질 거예요

선생님, 작년 봄이었던가요. 대공원으로 소풍 갔을 때 선생님과 재미있게 놀던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점심을 드시다가 김치가 좋다고 김치를 찾으시던 모습도 생각나구요.

2학년 때는 수업 시간마다 재미있는 책도 읽어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구요. 추운 겨울에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몸은 추웠지만 마음은 불꽃처럼 뜨거웠어요. 왜냐면 선생님의 그 넓으신 마음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셨기 때문이에요.

숫자로 가득 찬 성적표를 받기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저희들은 공부는 못해도 꿈은 있었으니까요. 만약 저희가 꿈이 없었다면 매일 웃는 얼굴로 학교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꿈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게도 꿈이 있어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나 생물 선생님이 되는 꿈이에요. 2학년 때는 친구와 약속도 했어요. 우리가 커서 꼭 S대 생물과에 들어가서 만나자구요. 하지만 그 커다란 꿈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되려면 친구를 미워해야 하고 놀러야 하고 꼭 1등을 해야지만 된다나요. 그래야지 만 S대라는 곳에 갈 수 있대요. 공부가 쉬운 줄 알았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는 몰랐어요. 겉으로는 친구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런 공부 해서 뭘해요. 그래서 전 실업계를 택했어요. 기술 하나라도 배워서 외국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절대로 경쟁 상대를 제 친구로 두지 말고 외국에 있는 무수한 인재들을 생각하며 공부하라구요.

그까짓 공부라는 것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끊은 고3 언니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중3이 되어 보니 이해가 돼요.

선생님, 그래도 저희들을 보기 위해 학교에 나오시는 선생님을 보면 마음 편안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사회인데, 왜 교장 선생님은 그걸 막으시죠? 법을 어긴 사람은 인간도 아닌가요? 그 더러운 법! 그 법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죽제도 만들어요.

선생님, 왜 탈퇴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은 선생님이 탈퇴해도 절대로 욕하지 않아요. 그건 좀더 지난 후에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콩나물 교실도 좋구요, 아무리 쓸모 없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도 좋아요. 거기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배우면 되잖아요. 다시 예전처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없이 입지만 그보다 비민주주의 사회가 너무 싫어요.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다 하며 어른들은 말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영등포 을구 재선거할 때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선생님과 다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교원노조는 언젠가 꼭 이루어지지라 믿어요. 그때 가면 교장 선생님도 잘못했다고 비시겠죠?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선생님, 내일도 학교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989년 8월 24일 이상희 올림

## 선생님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합니다

### 사랑하는 담임 선생님께

이 편지가 선생님께 전해질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필을 들었습니다. 찌뿌드드 흐린 날씨와 주룩주룩 내리는 잦은 비가 오늘 하루 저를 저절로 한숨 쉬게 만들고 상념에 젖게 했지만 노조일로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실 선생님을 생각하니 이런저런 잡생각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해요. 몸 건강히 잘 계시는 거죠?

방학도 이젠 1주일 후면 끝납니다. 요번 방학은 방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긴 어떤 선생님 말씀을 옮기면 3학년은 벌써 방학이 끝났다지만 중학 마지막 여름방학에 한 일 없이 그냥 끝나게 되어 조금은 섭섭도 하지요. 요즘은 짜증만 늘었답니다. 임시 담임! 임시 담임을 운운하시며 취기 있는 듯한 얼굴로 종례마다 들어오셔서 잔소리만 늘어놓으시는 교무주임 선생님.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알미워 죽겠습니다(아마 굶어 죽지는 않겠죠? 맞아 죽으면 몰라도). 그리고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조금만 아파도 결석하는 아이들, 그리고 보충수업 끝시간 무렵이면 맹맹이 치고 사라져 버리는 아이들을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6, 7시간 수업도 모자라 방학까지도 보충수업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실정,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보충 프린트 풀 때면 어쩔 수 없어 손으로 답을 표시하면서도 정신은 딴 데 가 있거나 조잘거리기가 일쑤지만 간간이 떠오르는 선생님 생각, 그때마다 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기억되길 기도합니다. 마냥 즐거울 나이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뭐가 즐거운지 웃어대는 저 자신, 그리고 아이들, 우리들은 선생님의 징계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과 이별을 생각하며 울었지만 선생님의 부당한 징계조치에 반대할 의사 표시를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조건 순응하는 교육을 받아 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땅의 교육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을 그 누구

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의로운 투쟁에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중 선생님들도 선생님과 함께 투쟁하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불씨 하나가 온 들판을 태울 수 있습니다. 역사는 꼭 진실을 밝혀 주리라 굳게 믿으면서 편지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제 마음을 함께 띠웁니다.

선생님, 그럼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꿈 꾸세요(노조가 승리한다거나, 선생님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꿈 등등……).

1989년 8월 12일 수연 올림

## 민족의 비극을 아파하는 선생님께

어제 빛나던 햇빛도 오늘 마냥 화사하고 저 푸른 창공 더없이 높고 푸르건만  
왜 선생님께서는 이런 운명을 달게 받으셔야 합니까.

18일날 선생님 소식을 들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도 선  
생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못내 아쉽고 섭섭하군요. 죄송합니다.

그 소식 듣고 아직까지 전 실감도 나지 않을 뿐더러 선생님이 그런 운명을  
받을 죄목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점수 따라 평가받는 학생을 위해 교사의  
무너진 권리를 찾겠다고 노력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선생님의 그 피  
땀 어린 노력이 이렇게까지 허물어지고 역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더구  
나 이 결실의 계절에, 배를 굶주리고 민족의 교사로서 월급까지 모두 투자하시  
고 시내까지 갈 차비가 없으셔서 저금통을 깨시고…… 선생님의 그 피땀 어린  
노력 그 누가 알겠습니까? 지켜보지 않은 사람 모르고 당해 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 하도 답답해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시라고  
하면 “순화야, 내 한 몸은 개인의 한 몸이 아닌 민족교사의 한 몸이다. 울산의  
대표이자 이 민족의 대표가 밥을 굶는다고 죽진 않을 것이고, 밥을 먹기 위해  
가정을 이룬다면 이 민족의 참교육은 누가 이루겠느냐?” 하시며 조금도 굽힘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땐 오히려 제 자신  
이 부끄러워지고 선생님께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전 한때 선생님이 포기하시고 나오셔서 다시 교단에 서서 저희들과  
얼굴을 맞대고 즐거웠던 지난날 못지않게 웃어 가며 수업을 할 수 있길 빌었지  
만 지금은 아니에요. 선생님의 그 편지를 받고 뉘우쳤어요. 제 자신이 무척 부  
끄러워졌어요. 선생님, 전 언제까지나 선생님을 지켜볼 거예요.

선생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나니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졌어요. 한 개인의  
즐거움을 무시하고 희생함으로써 이 나라 전체의 교육이 밝고 건강하게 진행된  
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느님

은 더 밀고 따르는 자에게 더한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도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에 찬 암흑기에 도달해 있다 해도 선생님의 그  
노력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중언되지 않는다면 먼 훗날 우리의 역사  
가 선생님을 심판하고 권력가들을 심판해 줄 거예요. 지금은 저 같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켜봐 주고 응원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저 하늘에 진실만을 바라는  
별님도 말없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선생님의 노력이 자라는 저희들의 가슴에  
하나하나 박혀 심어져 갈 때 저희들도 크면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교사를 만난  
걸 자랑스레 여기고 실천할 거예요.

선생님, 가을이 알게 모르게 소리없이 다가오고 여름이 아쉬운 듯 떠나가네요.  
따라서 개학도 다가오고 고교 입시도 눈앞에 닥치는군요. 선생님의 노력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주위환경 의식하지 말고, 제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열  
심히 열심히 뛸께요. 그리고 선생님 응원도 열심히 할께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저만은 선생님 편이 될래요.’

밝은 미래를 꿈꾸며 몸 건강히 안녕히 계셔요.

1989년 8월의 어느 밤에 제자 올림

## 밝은 미래에 대한 시작의 북소리

알게 모르게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을 재촉하는 서늘한 바람을 맞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억압이나 속박 속의 삶을 살아 보지 못한 저이지만 이야기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 어릴 때부터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아! 그러한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순간뿐, 깊이 생각하며 애국투사들의 얼을 기리며 억압하는 일제를 증오하며 이를 잘 정도의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제의 속박 속에 살아온 우리 조상들, 속박 속에서 헤어났던 1945년 8월 15일의 기쁨, 모든 것이 점점 잊혀져 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 남은 것, 그것은 바로 남아 있지 말아야 했던 다름아닌 그때의 교육 아닌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교교육적인 학교라는 곳에서 ‘난 일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성적은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 ‘다음에는 꼭 누구를 이겨내야지’ 하는 등 온갖 경쟁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된 것이라는 사실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6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는 왜 다니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전 “지식을 쌓기 위하여 학교에 다닙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하여 다니는 곳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애·조국애를 깨닫고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은 전혀 반대의 교육입니다. 일등을 추구하며 선생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청소할 때만이 목소리 높여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다. 그러니 청소 열심해 해라”고 떠들어댑니다.

진정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말이 형식적이어야만 합니까? 선생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지요. 학교라는 감옥에서 죄인 아닌 죄인처럼 허리 굽혀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책이나 들여다보는……

저는 처음엔 선생님을 ‘뭔가가 다르구나!’ 차차 ‘이○○ 선생님은 사실만을 말씀하신다’, ‘왜 저러실까? 왜 신상에 좋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실까?’, ‘참된 교육을 위해?’, ‘교단은 참된 교육을 위하는 선생님이 설 곳이다’ 등 내색은 하지 않아도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전 선생님을 존경하면서도 더욱더 가까워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 선생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밀려드는 듯한 두려움과 신기함이 북받쳐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전 뛰어넘었습니다. 두려움과 신비함이 아닌 이상·희망·꿈·기쁨 등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의 낙관일 뿐 전 비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인신매매, 각종 강탈, 마약 등이 계기가 되어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꿈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다 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법원에서 선생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온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합니다. 하나 꺾임 없이 소리 높여 거짓된 사회의 부정당함을 외치는 선생님의 우렁찬 목소리는 밝은 미래에 대한 시작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선생님 편지 제일 마지막 부분 ‘남부 유치장 18방 이○○’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부 유치장 18방에서 어떻게 선생님의 편지가 날아왔어야 했을까? 선생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실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선생님을 그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현실은 무엇보다도 수치입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어진 삶 45년 8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헤어진 삶이란? 일제의 속박과 억압에서 헤어진 삶. 45년 8월은 일제의 속박 속에서 헤어나던 찬란한 해방의 기쁨을 맛보던 해이자 달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의 비교교육이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그 헤어진 때를 계기로 새 교육, 즉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 시작함을 의미함이 아닌가 합니다. 헤어진 삶 다음에는 새로운 삶이 찾아오니까 말입니다. 저의 생각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 45년 8월 24일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 부미 올림

그날, 저희 교실에 맨 처음 들어와 주세요 125

##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이름 모를 새소리만이 이 밤중의 적막을 깨뜨리는군요.

선생님께 필을 들어 본지도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곳은 어떠한지, 이 더운 여름 드시는 건 잘 드시는지, 건강은 어떠하신지 모든 게 다 궁금하군요.

선생님, 저희들 22일날 방학했어요. 그렇지만 24일부터 또 보충수업해요. (3학년은 12일간) 3학년은 전체 다하는데 2학년이 한 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학교에서는 야단이에요. 선생님의 덕분으로 학생들은 거의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고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성화는 여름이 찾아온 탓인지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참, 전에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갔었는데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다면 계시지 않더군요. 선생님을 뵈려 간다는 그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하지만 선생님께서 안 계신다는 소리에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설움이 복받쳤던 것이죠.

저희가 거기 갔다 온 후로 저희 학교는 빨칵 뒤집혔어요. 선생님 면회간 학생을 잡아야 한다나요. 참 어처구니없더군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뵌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될 줄이야. 전 당장 소리지르고 싶었어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뵌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죠?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정의로 뭉쳐진 선생님이 회생되게 내버려 두어야만 되겠어요? 당신들은 너무하시는군요! 그런 인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세요. 자격이 없어요. 당신네들이 그런 처지에 당해 있을 때 학생이 모른체한다면 스승의 보람은 어디서 어떻게 찾죠?……

이 비겁자, 이중인격자——

하지만 저에게 그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울분이 목까지 치달아도 말할 용기가 없는 제 자신을 울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한층 더 선생님이 그리워졌어요. 선생님께서 계셨더라면 용기 없는 제 자신을 보며 다시 한 번 선생님이 위대하다는 걸 느꼈겠죠. 제가 참 바보스럽죠?

전 그 후로 느꼈어요. 여러 선생님의 행동을 보며, 인생은 눈치껏 여러 사람이 하자는 대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요. 나 혼자 정의에 찬 듯, 미친 듯 날뛰어도 어느 누구 하나 왜 그러냐고 묻는 사람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감시는 심해만 가고 주위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더군요.

선생님, 선생님은 언제까지나 선생님의 생각을 주장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왜 그렇게 계셔야만 하세요. 교직원 노조는 이제 많이 해체되었어요. 선생님 혼자만 바둥거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민주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악법도 법은 법인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저까지 불안해져요. 밤마다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요. 무섭고 두렵기까지 해요.

선생님, 전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의 승리를 위해 불리할 땐 후퇴해야 한다고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위에서 반응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신라시대의 화랑 세속오계에서 임전무퇴라는 게 있죠? 전 그것을 반대해요. 일단 질 것 뺀한데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후퇴했다가 다음에 기회를 엿보아 다시 침략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해요.

선생님, 제발 선생님의 주장을 때에 따라 누그러뜨릴 줄도 아세요.

이 글을 읽으면 선생님은 절 무척 원망하실 거예요. 제자라고 믿고 길러 놨더니 희망과 용기는 주지 못할망정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다니 하면서요.

하지만 전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선생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잘되길 빌던 제가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그만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지금은 그만큼 위험해요.

전 선생님이 어떤 땐 바보같이 느껴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주어진 인생 조금씩 적당히 눈치보며 살아가시지 않고 왜 개밥에 도토리가 되어 설치시는지. 물론 선생님의 사상과 제 사상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더 이상 선생님의 생각에 간섭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교단에 서신 선생님의 모습 뵙고 싶어요. 웃으며 공부하던 지난날이 그리워요. 선생님은 그립지 않으세요. 밤이 꽤나 깊었네요.

웃으며 다시 한 번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빌며 이만 필을 놓을께요. 종종 편지할께요.

1989년 7월 23일 밤 순화 올림

## 또다시 죽음의 수업을 받아야 하나요

방금 전까지 고추 꼭대기를 낡은 가위로 거의 두 시간 가량 따고 지금 들어오니 머리가 땅하고, 가위가 들지 않아 너무 힘을 주어서 그런지 어깨가 아프군요.

선생님! 고추 꼭대기 따는 두 시간 동안 선생님 모습 떠올리며 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울분이 터져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연히 반 친구가 아파서 친구의 짹인 아이와 함께 양호실에 갔지요. 그런데 양호실 틈으로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 와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교무실에 한번 들어가 뵙고 싶고 또 둘째 시간이 도덕이라 마음 졸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퇴근하겠습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감이 허물어지고 한풀 꺾여 교실에 들어갔지요.

교실에 들어가 지연이와 창밖을 바라보다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선생님!’ 하고 부르며 쫓아가 불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마음 속으로 울었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엔 선생님 대신 교감 선생님이 보강으로 들어오시더군요. 교감 선생님께서 앞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걸었던 희미한 희망이, 열심히 쌓았던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듯 내려앉았답니다. 저는 그때 저의 모래성을 무너뜨리고야 마는 교감 선생님이 미웠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에게 보내 주지 않으시나요. 선생님께서 죄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한 죄, 우리를, 하루하루 속에 죽음의 무덤을 파고 미움을 쌓고 서로를 싫어하던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한 죄밖에 없는 테 그것도 죄인가요. 우리에게 한 가닥 꺼져 가는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신 것, 우리에게 나아갈 길, 보아야 할 길을 보게 하신 것이 그렇게 죄가 되나요.

우리에게 그저 시험 대비용, 한 번 시험 볼 때면 열불나게 하며 모두를 적으

로 보고 모두를 짓밟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공부, 책 한두 권 대신 좀더 우리를 어느 암담한 어두운 소나비에서 피하고 우리들더러 마음의 친구, 정이 오가는 친구, 계급주의가 아닌 더 바른, 더 평범한 삶을 살고 진실을 배우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그 모든 것이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게 된 죄목인가요. 그런가요, 선생님!

이런 비현실적인 모순 속에서 교감 선생님 말씀이나 잘 듣고 밤새 책과 씨름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하나요.

선생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도덕 수업 시간에 들어오신 교감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도 머리에 남아 있지 않아요. 언제나 공부해야 한다는 그 말씀, 훌륭한 사람 되라는 그 말씀, 그러시다 국어 책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선생님…… 저는 모범생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교감 선생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동안 허공 보고, 창밖 보고 심지어는 잠까지 자고 말았거든요. 저는 오늘 수업 시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어떻게 보내었는지 모르게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책을 더 읽고 싶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별로 읽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거든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던 그 순간 새로운 굳은 의지와 더 열심히 나만이 아닌 우리를 알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그 때문지 않은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생명선 같은 우리를 건지는 짧고도 의미 있는 1시간마저도 빼앗아 가 버렸나요. 우리는 또다시 죽음의 수업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또 다시 숨을 쉴 공간마저 빼앗겨야 하나요. 저는 지금 교과서가 잘 잡히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동안 갇혔던 새장 생활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날지 못하고 새장에 또다시 갇힐 새가 되느니 차라리 천사의 새가 되어 날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개학날부터 지금껏 학교에 가서 딴청 피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지만 책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은 채 누워 있거나 딴전을 피우거나 하는 못난 행동밖에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면 언제나 모든 선생님께서는 스피커로 “이번 도(道)학력고사 본 것으로 3학년은 원서 쓸 테니 알아서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하루에도 열댓 번 정도는 하지요. 그러나 전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며 아무리 소리쳐

도, 그전처럼 겁에 질려 마지못해 하던 공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저를 혼내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모례의 도학력고사 준비보다 지금의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의 제가 되어야 할지를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책을 읽으며 저를 찾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후에 공부란 것을 이해하고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시기가 늦어진다면 저는 석 달밖에 남지 않은 3학년을 아쉽고 무의미하게 보내겠지요. 하지만 저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빨리 알게 된다면 3학년이 끝날 무렵에야 저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저를 알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께요. 오늘도 선생님의 그 눈물겨운 뒷모습을 떠올리며 더 바르고 정의로운 것은 그 어느 힘으로도, 억압으로도, 탄압으로도 이길 수 없음을 느끼며 바르게 저를 알고 남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더욱더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뒷모습을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더 열심히 살 것을 약속하며.....

선생님! 우리들의 영원한 선생님! 언제나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1989년 8월 27일 제자 강순동 올림

### '껍데기는 가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선생님, 간밤의 꿈엔 선생님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선생님 가까이 까지 다가갔으면서도 못 만나 뱉고 깨어서 서운한 마음이랄까 섭섭함 그리고 조금의 허무감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군요.

선생님! 꿈은 반대라니깐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음을 통 조절할 수가 없어서 몇 통의 편지를 썼으나 모두 거짓에 찬 저의 모습이기에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요 며칠 사이에 체력장을 앞두고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매달리기, 멀리뛰기, 오래달리기 등을 연습했는데 체육 선생님의 호통이 대단하답니다. 체력장 연습을 이를 동안 한 탓인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흐느적거리는 해파리와 같아지고 배는 당겨서 웃거나 밀하기도 힘들고 팔을 뒤로 넘기기도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을 이제서야 해봅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았으면서도, 꼭 체력장이란 벽에 걸려 그동안 안하던 것을 꼽으로 해야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쯤엔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학교길에 서로의 사상이랄까 생각에 대하여 격렬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 나왔는지 모르지만 '통일'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친구들은 나와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북한이 너무 사상에 물들고 우리 외는 한민족임에도 다른 민족, 반(反)민족으로 통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처럼 껍데기들이 남과 북, 두 나라에서 똑같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그동안의 살았던 방식에, 그 나라 사상에 서로가 물 들어 있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보다 더 혼잡하므로 오히려 안 이루어짐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한편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

각하며 남과 북, 우리 한민족은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된다고 해도 거리  
낌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친구들과 맞서  
무엇보다도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 뒷일은 정의로운 만남 속에서 이루어  
야 한다고 저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의 이런 생각은 국민학교  
적 생각이라며 제가 북의 편을 든다면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럴까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이상하게 변해 왔을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민족은 껌데기들에 의한 분열을 벗어던지고 한 민족인만큼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조금의 격동기는 있겠지만 그 격동기를 뚫고 나가며 서로 단합한다면 그  
고뇌가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내가 이제까지 배워 왔던 도덕·국어·사회 교과서 등을  
통해 나오는 내용들이 남과 북의 관계를 더욱더 강렬한 색깔로 덧칠해 경계선  
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언제나 '북한은 우리와 문화와 생각과 모든 행동이 너무 반대이  
기 때문에 우리와는 한 길로 접어들기는 영원히 그릇된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  
리나라만이 더 잘사는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왜 이제까지 배워 왔던 8년 동안의 생각의 틀에 대해서 상  
당 부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제게는 왜 '현재 우리 민족은 서  
로가 조금은 다르다 하여도 서로가 노력하여 둘 다 더 잘사는 나라로 함께 나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치켜들게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어느 생각을 정리하여야 할지 망설여진답니다. 8년 동안 배워 왔  
던 나의 생각, 그것에 비하면 1년의 반도 안되게 배우며 느껴 온 나의 생각,  
이중에서 어느 생각이 나의 가슴속에 채워져 가고 참다운 나를 만드는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군요.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읽고 고민을 한 뒤 그 해답을 더 올  
바르게 판단하고 싶군요. 그리고 나의 의사 전달을 더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능력도 기르고 싶군요.

그런데 요즘 들어 또다시 입시를 평계삼아 책을 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엇  
하나 열심히도 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지금도 그 드넓은 운동장 한복판을 걸어나가시던 선생님 모습  
이 떠오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찡하고 웬지 분한 마음마저 든답니  
다. 그러나 선생님의 그 뒷모습은 정의에 가득 차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선  
생님, 선생님들께서는 결코 지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기신 것입니

다.

그동안 우리가 새장 속에 갇혀 있어 바깥 공기를 마시지 못해서인지 그 새장  
을 벗어나 날아가는 방법, 공기를 찾아 숨 쉬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  
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  
리가 계속 새장 속의 새처럼 희박한 공기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죽고 말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았으니 언젠가 꼭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선생  
님! 저는 이제 석 달 동안 열심히 책 읽고 저를 더 굳게 다지겠습니다. 그동  
안 제가 너무 좁게만 보고 하나님밖에 몰랐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도 세  
지 못하지만 손가락이 열이나 된다고 느꼈으니 그것을 세는 방법을 알면 더 열  
심히 셸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교단을 떠나셨지만 정의는 이기는  
만큼 다시 교단에 서실 수 있다는 신념에 차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슬프지 않습  
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선생님께서 몸은 비록 교단에 서 계시지 않지만  
마음은 교단에 계시니깐요. 그러므로 선생님의 몸은 보지 못해도 선생님의 마  
음속의 모습은 만나 볼 수 있으니깐요.

선생님!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려 주신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도  
선생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선생님! 마음 잡기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지금 이 마음을 더 굽히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더 바르고 곧고 더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아무것도 선생님께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  
히 모든 이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길……

1989년 9월 1일 제자 못난이 올림

## 하늘이 둘로 갈라진다 해도

우리는 서로가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된 어른들에 의해 서로가 눈물을 머금으며 이별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별을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못된 어른들이 우리들을 떼어놓았지만 우리들의 껌데기만 헤어져 있지 더 자유롭게 더 가까운 만남을 기약하며 더 붙었습니다. 못된 어른들은 이제 우리들을 영원히 떼어놓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그 얹매었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이 하나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와 영원히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얇은 칸막이 유리로 벽을 만들어 놓고 서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유리벽을 깨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전 이제 울지 않아요. 하늘이 둘로 갈라진다고 하여도 겁나지 않아요. 전 제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찾았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릇된 악법을 고쳐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 못된 어른들은 정의를 원하는 선생님과 우리에게 결국 질 것입니다. 정의는 이길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란 말뜻처럼 모든 일은 옳게 돌아가야 하며, 옳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지금도 생각의 두뇌를 잊은 어른들을 위해, 그리고 무조건 위압감만 주는 어른들을 다시 생각의 두뇌를 가질 수 있게끔 선생님의 뒤를 이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나 선생님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항상 먹구름만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죠. 더 맑게 갠 날을 향해 하늘의 푸르름이 찾아오듯 더 밝은 사회를 위해 지금의 저는 더 넓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독서를 하겠습니다.

1989년 9월 2일 제자 동동 올림

## 참으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내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된다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새로 오시는 선생님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끝없는 허무와 외로움만이 짙게 밀려올 뿐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고교입시라는 강박관념에 억눌려 시험 점수 올리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혹 선생님의 말씀을 잊거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이라는 짧고 아쉬운 만남이었지만, 선생님께선 그 시간에 저희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 선생님과 헤어지고 난 뒤,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님을 알면서도 태연해져 버릴지도 모를 제 자신을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빈틈없이 꽉 짜여진 학교 생활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겠지요.

선생님! 이제 도덕 시간마저 시험 빈도율이 어찌구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버리면 우린 어쩐다죠! 자기 생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인간이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로보트인가요? 울고 싶습니다. 목을 놓아 울고 싶습니다.

공부! 물론 좋지요. 해야만 하겠지요. 하지만 이차방정식만 풀 줄 아는 우등생보다 꽉 찬 휴지통을 보고 스스럼없이 갖다 버리는 열등생이, 다들 그늘에서 놀고 있을 때 띠약볕 아래 운동장의 풀을 뽑는 열등생이 보다 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는지요. 징그럽게 공부 안한다는 선생님들의 말에 징그러워서 공부 안하는 우리들의 변명은 과연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만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진실을 탐구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1989년 8월 31일 이현금 올림

##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선생님께서 정의를 위해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소에도 선생님을 존경했지만, 많은 아이들과 저는 단식투쟁까지 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한 마리의 연약하고 아름다운 새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조직을 향해 던지시는 선생님의 참뜻을 이해해 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커다란 힘과 권력이 있다면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무척 맘이 아픕니다. 그 대신 자기 전에 꼭 두 손 모아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이간다고들 합니다. 또 옛 소설을 보더라도 언제나 이겼습니다. 지금은 잠시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참고 견디어 주세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니까요. 제가 교원노조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선생님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저의 이 편지가 잠시나마 선생님의 고통을 잊게 해드리고 마음에 위안이 되셨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훌리신 눈물과 진실로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맘은 정말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고결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저의 맘에 영원히 자리잡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선생님을 위하여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1989년 7월 13일 박선미 올림

## 항상 갖는 아침의 희망처럼

늘 푸른 선생님 보세요.

어제처럼 아침을 맞았어요. 환하고 상쾌한 아침을 전 좋아해요. 아침에는 모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아침은 슬펐어요. 갑자기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항상 갖는 아침의 희망처럼 저도 희망을 갖기로 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뱃 날이, 다시 수업을 받을 날이 있을 거라구요.

선생님, 전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가를 알았어요. 변화를 바라고 계획을 했지만 실천에 앞서 항상 말뿐인 나의 생활태도가 얼마나 나쁜 습성인가를 말이에요.

슬퍼도 슬픔을 보이지 않고 늘 푸르고 밝은 하늘 같은, 해 같은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전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당장 닥친 나의 문제에만 신경 쓰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인 양 생각했을 거예요.

이젠 알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그리고 용기를 갖자.'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렵니다. 그렇다고 주제넘는 만용이나 독단, 독선을 품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계를 올바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것이지요.

옳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무슨 얘기건 마음놓고 해도 불안하지 않고 서로서로 믿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1989년 8월 17일 용기 있는 제자(앞으로의 희망) 은주 올림

추신: 선생님 예뻐지신 것 같아요. 살도 아주 죄금이지만 빠진 것 같구요.

기분 좋으세요?

그날, 저희 교실에 맨 처음 들어와 주세요 137

## 참교육 반대편에는 일제의 망령이

선생님, 비가 많이 와 걱정이에요.

요새는 웃음이 나와 침을 수가 없어요. 땀이 밖에 나가면 걱정, 자식이 대학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 어디로 피서 갈까 걱정, 잃어버린 우리 땅 어떻게 찾을까 걱정, 통일하자 생각만 해도 걱정, 참교육에 대한 걱정…… 웃기는 세상이죠?

오늘 아침이었어요. 제가 징계 철회 시위했다는 게 집에 알려졌어요. 할머니께선 그런 일에는 나서는 게 아니라며 잘난 사람은 앞뒤 다 재보고 손해 볼 그런 짓은 안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학생들처럼 정권 가지고 따진 것도 아니고 화염병이나 그 혼한 돌도 안 던졌는데 왜 전경과 백골단한테 맞고 욕먹어야 되느냐고 울며 따졌지만, 울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득이라며 “너 때문에 큰일이다. 걱정 이야 걱정” 하시는 것이었어요.

더러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숨죽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묘책인 양 가르치는 어른들의 세상 사는 법(어른들이 말하는)을 조금씩 배워 가야만 하는 우리들이에요.

선생님 정말 걱정이에요. ‘한국 속의 일본문화’가 두려워요. 거리거리마다 ‘가라오케 ○○’라고 일본어 혹은 한문으로 쓰여진 일본식 간판의 술집들. 명동, 이태원 옷가게를 장악하는 일본 그림과 글이 그려진 옷. 서점가를 판치는 일본 잡지. 백화점에 널린 일제 가전용품, 생활용품, 옷, 음식. 점심 시간에 방송실에서 훌러나오는 일본 가수의 일본어 노래. 교과서 표지에, 책받침에, 가방에, 필통에 덕지덕지 붙은 일본 스타들의 사진. 더더군다나 할머니가 부르는 일본 군가의 노랫소리도……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심각한 일이에요.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외치던 우리에게 매를 든 선생님. 그 손으로 매일 교감 선생님 차 문을 열고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는 선생님을 보고, 우리들은 교문을

떳떳이 들어가며 그쪽을 향해 일제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의미 있는 비웃음이에요.

한 달 전에 친구 만나러 나간 제 친구가 2주째 돌아오지 않았을 때 담임 선생님이 하던 말. “걔? 죽었나 보지.” “○○? 인신매매단이 잡아갔대?”

TV에 나온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던 내 동생, “아이 러브 유·아이 니드 유·아이 워너 원 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웃겨요, 선생님. 웃기다 못 해 눈물이 나오려 해요.

사실은 힘든 일 하시는 선생님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제가 더 부끄러워요.

통일 염원 45년 8월 12일 제자 김선미 올림

## 폭풍우 뒤엔 따스한 별이

지금 막 선생님의 잘 지내신다는 말씀을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뵐 수 있을 텐데 왜 편지를 쓰는지…… 선생님을 뵈면 결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바보 같죠?

아름다운 일요일입니다. 은은하고 흐릿한 하늘은 웬지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많은 선생님들의 고뇌와 묵살되어 버린 숱한 젊은이들의 진실, 그리고 저와 같이 용기 잃은 학생들의 작은 혼들림들이 언젠가 폭풍을 몰고 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풍우 뒤엔 따스한 별이 조국의 땅을 밝힐 거고요.

우린 결코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바르게 알 권리, 바른 방법으로 알 권리, 그리고 우리들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깨우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부당한가 보죠. 저희는 바르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덕 책은 항상 우리에게 정의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지, 힘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죠.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가르침을 받았지, 그 진실을 묵살하라고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이득한 이론에, 활자에 지나지 않지만 어떨 땐 믿을 종교가 있다는 것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선생님의 가누기 힘든 모습을 본 뒤 신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죽는 날까지 믿지 않으리라 결심해 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지껄여도,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외면했던 친구는 손을 내밀고, 옥박지르던 부모님은 용기를 심어 주시고, 탄압했던 사람들은 속죄할 날이 오리라 믿을 뿐입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1989년 9월 3일 제자 올림

##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안녕하셨어요?

오늘 텔레비전에서 ○○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왜 자기네 집엔 호소문이, 선생님의 글이 오지 않았나 궁금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을 모두 예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전교조에 가입하실 줄을. 그리고 어느 신문에 나온 선생님 성함을 보자 아이들은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했지만 곧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 보도되는 전교조에 대한 소식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이 탈퇴하시는 것을 보고 차라리 선생님께서도 탈퇴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록 힘에 의해 탄압되고 굴복하고 복종할지라도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개학이 되었을 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학 이후 나오신 이틀 동안 선생님의 침묵 속에서도 저희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전 힘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뵙고 싶었지만 선생님 계신 곳 앞까지 가서도 드릴 말씀이 없어 돌아서곤 했습니다.

지금은 제 무력함이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것이 서러움에 가까운 피곤을 주는 밤입니다. 힘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신 선생님, 우리가 평온히 앉아 수학문제를 풀 때 우리의 권리를 찾아 주시겠다고 뛰고 계시는 선생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용기가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으시냐는 짓궂은 질문을 한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건 그분에 대한 물분이,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보 같은 저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 바보 같은 무력함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또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갑자기 별빛 한가닥 없는 이 밤에 생각이 납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구절인데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선생님 다시 봐요. 선생님은 칠판에 백묵으로 아름다운 시를 적으시고 저희는 낭독하는 교실에서 꼭 뵈어요. 제가 용기가 생기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때까지는 무력한 저의 마음의 지지와 찬사와 존경을 한아름 안겨 드리고, 더불어 저희 부모님의 지지와 찬사까지도 띠웁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기는 날 뵐 것을 약속드리며……

1989년 8월 25일 2학년 6반 김유영 올림

울산 ○○중학교 2학년

### 선생님의 빈 책상에 꽃을 놓으며

초여름의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 주기 위해 비가 내립니다. 지긋지긋한 장마철에 몸은 건강하신지요.

실록의 계절 6월도 벌써 지나가고 꿈꿉한 7월도 12일이나 지났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뵈려 면회 가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아직은 이르다고 가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면회를 못 가는 대신 못 쓰는 편지나마 쓰려고 한번 펜을 들어 봅니다.

2학년 5반은 지금도 여전히 개구쟁이짓을 하고 모두들 건강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는 책상 앞에 앉아 계시지 않지만 우리들은 선생님 책상 앞에 꽃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우리가 선생님 계실 적에 이렇게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 고생이 많으시죠. 언제쯤 나오시렵니까. 하루빨리 나오셔서 우리들과 수업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 모두들 선생님에게 면회 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모두들 갈 수 없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못 본 지 약 한 달인데 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만 같습니다. 선생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장마철이라 식중독에 조심하시고 언제나 웃음을 잊지 마시고 몸 건강하세요. 언젠가 면회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하루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 7월 12일 선생님의 제자 경순 올림

## 선생님의 포근한 사랑을 그리며

9월 1일

선생님, 이제야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바뀌셔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선생님이 보고 싶습니다. 어디서는 단식투쟁이니 수업거부니 하고 있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히 앉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용기 없는 겁쟁이입니다.

선생님, 9월이라는 새로운 달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많이 알고 생각하고 학생다운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현복이의 일기》를 읽어 보았어요. 일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적으로 진솔하게 쓴 글이더군요. 현복이 오빠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힘찬 모습을 볼 그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생활하겠습니다.

9월 2일

터벅터벅 힘없이 교문 밖을 빠져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 웬지 가슴이 몽클함을 느낍니다. 투박하지만 방송으로나마 들리는 선생님들의 애절한 말씀 한 마디 한마디는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선생님, 용기를 가지세요. 선생님 말씀처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모습을 볼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용기 없는 겁쟁이며 비겁자로 생각됩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

며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전 정말 나쁜 아이인 것 같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살며시 안아 주시는 선생님의 사랑,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 답답합니다. 가슴 속에서 끓고 있는 것이 하루속히 폭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좀더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한 시련일까요? 이 시대의 양심인이 되기 위해 노력, 또 노력해야겠죠.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종이에 쓴 것처럼 언젠가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선생님 가슴속에 남고 싶고……

1989년 9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강민아 올림

##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께요

### 우리 모두의 등불인 선생님께

선생님, 막상 선생님과 헤어지고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보다도 먼저 지난날 선생님께 좀더 잘해 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리다고만 여겨지는 저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으니까요. 1학기,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속에 짧은 만남으로 맺어진 우리들과 선생님. 그 언젠가는 꼭 우리 후배들의 교탁 앞에 서 계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께요.

선생님, 학교 소식 매우 궁금하시지요. 오늘은 3학년 언니들의 체력장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결스카웃 단복을 입고 분주하게 뛰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1점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선배 언니들을 보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나가신 뒤 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엔 너무나 싫어서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사랑이 꽂피는 나무>라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던 중,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싫어서 7일째 점심을 단식하다가 끝내는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가는 극중 줄거리를 통해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결코 우리들의 교탁 앞에 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존경받으며 자신을 좀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 반면에 앞으로는 내가 할 도리만큼은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왜 1학기초부터 선생님들의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그저 선생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1989년 9월 4일 못난 제자 경선 올림

##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개학 후 선생님께서 수업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방학할 때까지만 해도 단식투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몸은 괜찮으신지요. 우리들은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들이 빨리 교단에 서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등교길에 학부모와 선생님들 몇 분이 교문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난 그때 저희들도 이해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그들은 왜 몰라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떨 땐 내가 존경하는 노 대통령이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라고 할 땐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우리들은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실 줄 알아요. 꼭 그 일을 성취하세요. 우리들은 언제나 선생님들이 교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언제나 선생님들 편이에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1989년 8월 26일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 최명옥 올림

## 참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뭐라고 첫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녕히 계시냐고만 묻고 싶어요. 떠오르는 선생님의 모습은 선생님께서 교단을 떠나시던 날, 멀리던 목소리와 눈물방울로 뒤섞인 얼굴과 수업중에 보았던 많은 모습들뿐입니다. 복도를 걷고 있노라면 선생님과 마주칠 것만 같고 교무실에 들어가면 미소지으며 앉아 계실 것만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교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참교육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어떤 가혹한 불행이 닥치더라도 전교조를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승리'라는 단어 때문에, '1'이라는 숫자 때문에 고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또 하나의 낱말이 학생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선생님이 저의 부모님 앞으로 보내신 편지도 보았고, 오늘 옆 친구가 가져온(몰래 가방에 숨겨 온) 유인물도 보았습니다. 옆 친구가 그 유인물을 가방에 숨겨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생 언니들이 나눠 준 유인물을 수워 아저씨들이 빼앗듯이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영이도 채 그것을 다 보기 전에 수위 아저씨들이 다시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왜 빼앗아야 했을까?' 이런 의문은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도 찔리는 것이 있는 것인지…… 뉴스를 보아도, 무슨 토론이다 뭐다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아도 아부와 아첨으로 매수된 거짓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에 방송으로 내보낼 수도 없겠지만……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말 속에서 시민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라는 단어 속에 그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모두 잘려 나갔고, 죄도 아닌 죄를 뒤집어씌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나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정신이요, 당의 정책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로 말할 수 없는 모순들…… 아직도 돈봉투가 날뛰고 학

부모들의 극성과 가난한 학생들의 비관, 가난하면 끝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썩어빠진 정신, 일등을 못하거나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사회를 경멸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모순의 가지들을 꺾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끼가 주어진다면, 힘이 있다면 나무째로 잘라 내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해 투쟁하시는 선생님들께, 또한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교조에 남아 있는 선생님께 진실로 뜻깊고 우렁찬 박수를, 분노와 함께 진실을 알게 해주신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저희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를요. 이런 혼란 속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저만이 아니라 저희 반, 아니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을 지지 할 것입니다. 몇몇 반에서는 벌써 선생님 일에 대해 토의하여 모금을 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힘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저희는 뭉쳐야 하는데 아직도 선생님들의 참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저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진실을 외면하는가'라는 말을 하면서도 당신의 자식이 데모를 한다든가, 민주주의에 대해 반의를 느낀다든가 하면 큰일이 일어난 듯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선생님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참교육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법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선생님입니다. 저희 후배들을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또 참교육을 이루하는 그날까지 전교조를 떠나지 않으실 것도 믿습니다.

저희도 참교육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돋고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한 인간으로서 투쟁하고 싶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가르침의 글을 보내 주십시오. 그 글을 지표로 삼아 아이들과 회의시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아이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글이 저의 글이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의 제자 모두의 글이라고 여겨 주십시오.

1989년 9월 1일 선생님의 제자 가희 올림

그날, 저희 교실에 맨 처음 들어와 주세요 149

## 저희들은 언제나 선생님 편이에요

선생님을 뵙지 못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어디 아프진 않으시죠? 경찰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소동을 부릴 때 말리지 못한 점 사과드려요. 선생님께서 저희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요즘 비어 있던 수위실에 수위 아저씨들이 꽉 차 있어요. 제 생각으로선 선생님께서 며칠간 안 나오시면 수위 아저씨들께서도 수위실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께서 나오셔요.

전번 반상회 때 회보가 왔는데, 그 회보는 전교조(참교육)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 허위·거짓인 것 같은 부분이 많았어요. 주된 내용이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킨다느니,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한다느니……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엄마들은 그것을 다 믿고 있으니, 정말 한심해요.

저희들의 영어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선생님뿐이에요. 꼭 나오셔요. 선생님 뵙고 싶어요. 시간 나시면 답장 써주셔요. 답장에 언제 찾아가도 되는지도 써주시고요. 선생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저희들은 언제나 선생님 편이고 언제까지나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드시면 탈퇴하세요. 탈퇴 각서가 얼마나 유치하고 비열한 내용인지는 저도 잘 알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빈 영어 선생님 자리를 매울 수 있는 분은 선생님뿐이에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이지 딴 사람의 제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언제나 선생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989년 9월 1일 선생님의 영원한 제자 신원선 올림

##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저희가 책임질께요

선생님은 우리가 방학을 보내는 사이에 학교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언니랑 광주 가는 버스 속에서 라디오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도 2년 전에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렇지 않아도 함께 선생님을 걱정하던 중이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우리는 하던 말을 잊고 서로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그만 울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무슨 말인가 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도 그만 눈물이 펑 돌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라 하면 꼭 코가 먼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항상 늦게 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잘린다는 얘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소문이 돌았습니다. 방학 전엔 선생님이 두 번이나 경찰에 잡혀갔었습니다. 수업이 빠졌을 때 선생님들은 모른다고 시침을 떼셨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그러는데 TV에 선생님들 테모하는 게 나왔었는데 아이들은 그걸 보고 웬지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TV에 보니 경찰 아저씨들이 방망이로 막 때리기도 하던데 선생님도 맞으셨습니까? 만약 우리 선생님이 맞으셨다면 나는 경찰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입을 빼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물어 봐도 〈접시꽃 당신〉의 시인 선생님이 얼마나 홀륭하신데, 겨우 엄마 없는 애기들을 두고 감옥에 가서 안타깝다며 딴전만 평했습니다. 아이들은 맨날 선생님 눈치만 살핍니다. 한 친구는 시간마다 교무실을 기웃댑니다. 한 날은 누가 선생님이 단식을 하신다는 소문을 알아내서, 아이들도 거지반 도시락을 건들지도 않고 몇몇은 먹다가 목이 메어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학이 일주일이나 앞당겨 선포되었습니다. 멋모르는 아이들은 좋아라고 야단이었는데, 이유를 알고는 다들 죽을 상이 되었습니다. 3학년 언니들은 전부 복도에 나와 앉아 박수를 치며 〈아침이슬〉 노래만 불